

진성고 신입생 학부모. 항의 집회 및 기자회견

- 일자: 2026.02.03(화)
- 출발: 오전 6시 50분
- 시간: 오전 8시 ~ 오전 9시
- 장소: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 일정: 경기도 교육청 집회 및 기자회견
경기도 교육청 간담회, 교육위원장 미팅 등



진성고 신입생 학부모. 경기도 교육감 면담 및 경기도 교육청 국장 회의

1차. 진성고 신입생 학부모와 임태희 교육감 면담

학부모. 전면재배정을 해달라. VS 교육감. 재배정은 불가하다.

관련부서: 중등교육과, 학교설립과

2차. 진성고 신입생 학부모와 중등교육국장, 학교배치국장 회의

중등교육국장. 전학생을 진성고로 배치하겠다. VS 학부모. 반대한다. 재배정을 해달라.

양이원영 TV. 광명시 진성고 학부모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공무원들 만나다.

양이원영. 2026년 2월 3일 오전 8시에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임태희 교육감 면담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오류를 수정 완화하지 않고 다른 고등학교들의 배정인원을 늘리고 잘못 늘려진 배정인원에 따라 배정을 잘못된 행정실패의 책임이 경기도 교육청에 분명히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배정인원 확대와 배정업무를 각기 다른 과에서 진행하면서 잘못된 배정결과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협의는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작년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 한 달 김남희 의원의 지적에 따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복지부동이었고 이제 서는 자기는 규정대로 했다면서 서로 다른 부서 탓만 하고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런 행정 실수, 행정실패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잡는 조치인 배정인원 재산정과 재배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어제 공무원들이 들고 온 대책이란 건, 새로 전학오는 학생들을 진성고에만 배치하겠다며 법률검토까지 끝냈다고 합니다 문제를 바로잡기보다 또다른 희생을 발생시키는 경기도 교육청의 행태에 분노를 느낍니다.



양이원영 TV. 광명시 진성기 학부모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공무원들 만나다.

☎ 양이원영: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진성고등학교 학부모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경우에 수원은 너무 커서, 광고에서 저 호매실은 같은 데는 너무 어려우니까. 건 학군을 좀 나눕니다. 안양하고 과천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학군을 몇 개 나눠서 그 학군별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로 돼 있는 광명이나 나눠서 하는 그 학군이나 똑같은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왜?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별로 과학고, 과학중점학교, 특성화고, 자율형공립고등학교 또 일반고등학교. 평준화가 돼 있더라도.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해서 가는 거를 존중하자 해 가지고. 선택에 의해서 배정하는 거를 원칙으로 다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 받지 않은 학교는 사실 안 가는 건데 일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학교의 정원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학생 정원이 줄어드는 데를. 학교 살리기 위해서 정원을 이쪽을 줄이고. 예를 들면 그 학교를 좀 살리기 위해서 그쪽에 정원을 유지하는. 그런 사례가 생겼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생겼냐면. 위례시하고 성남시에 생겼어요. 위례시라고. 위례시에서는 주민들이 다 위례시에서 수정구나 성남의 구시가지까지는 굉장히 뻑니다.

- 촬영 불가 요청으로 촬영 잠시 중지 -

교육감: 저희 교육감들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 학부모. 예정을 듣고 싶은 게 아니예요. 지금 당장 우리, 올해 입학하는 학생들에 해당하는.

교육감: 자, 올해 입학한 학생에. 여러분, 여기 계시지만. 저희는 강제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강제 배정을. 그러면 여기에 강제 배정을 해서 학생들을 채워 줘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 방침은 그런 방침이 아닙니다. 왜냐면 학생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해 주는 원칙을 저희들은 갖지 않습니다.

☎ 양이원영: 먼저, 학부모님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 진성고: 있는 학생을 가지고 배정을 했어야죠. 2,300명밖에 안 되는데, 2,400명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뽕뽕이 돌리면. 100명이 비는 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알았어야지. **배정인원하고 실제 신입생 학생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야죠.** 저희 9순위도 다 받아요.

☎ 학부모: 어떻게 이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육감님.

교육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과천 같은 데서는 학생이 천명이 빠져나갑니다.

☎ 양이원영: 학부모님들 이야기 먼저 들어보세요. 먼저! 먼저! 먼저,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아니, 교육감님 이야기하셨으니까. 마이크! 잠깐만! 잠깐만요. 마이크를 가지고. 누가 한 분이! 지금, 교육감님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누가 한 분이 이야기를 좀 대표적으로 하시죠. 교육감님이 보고를 받으시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본인의 이야기를. 입장을 이야기하신 거니까. 학부모님 이야기를 한 분. 학부모님들 이야기 들으러 오신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교육감: 오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학교에 아마 여러분 외에도 또 입학생도 또 있으실 거 아니예요. 언제 한번. 제가 그래서 내려오면서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께서 하실 말씀을 일단 듣고. 여러분 학교나 아니면 광명교육지원청에. 학교에서 한번 이런 기회를 만드셔서 충분히 여러분들 하고 토의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려야 될 내용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저희가 끝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에 의해서 배정하고 원하는 대로 배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은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보면 딱 입학생이 나오는데, 왜 배정을 그렇게 하느냐? 근데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 가는 애들, 특목고 가는 애들. 중학교 때. 그게 언제 같지 아무도 모릅니다. 학교

배정은 7월 달에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천 같은 데는 학생들이 사실은 중학교 졸업하는 거 생각하면 고등학교는 절대 부족한데 천명이 빠져나가는 거.

☞학부모: 교육감님, 저희 광명의 사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꾸 과천 이야기하지 마시고.

교육감: 예, 그래서. 같은 원칙으로 배정된 이 원칙을 광명에만 특별히 적용하는 거는. 지금 현재서는 어렵다 하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 종합적으로. 왜냐면 다 똑같이 적용한 원칙을 광명의 진성고등학교의 학생이 덜 배정됐다고 해서 해 줄 수는 없다. 다른 학교 다른 동네도 다 광명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는 진성고등학교에 집중됐을 뿐이지. 의정부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진성고: 집중되었다는 게. 그럼, 이번에 조정을 하셨어야죠.

☞학부모: 작년에도 미달이 되었어요.

☞학부모: 한 학교에 그게 계속 집중이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학생들이 절대 원하지 않는 학교에 자꾸 학생을 배정하는 거는 옳지 않다.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잖아요.

☞학부모: 교육감님. 제가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학교를 선택하다고요? 저희가 학교를 선택해요? **순위를 선택하는 겁니다. 순위를. 학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배정해야 되는 것도 저희 역할이예요?

교육감: 그니까 1지망, 2지망.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니, 순위. 좋습니다.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학부모: 여기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거를. 학교 아니 학생, 학부모한테.

☞학부모: 제 얘기 좀 들으세요. 저희 얘기를 듣고 저희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들으시는 거 아니예요? 제가 뭐 정치 어떻게 하시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다. 알아서 진행해주세요. 이게 문제니까.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예요.

☞진성고: 공평하게 인원을 배정해주었으면, 진성을 9지망으로 안 써요. 제일 적어서 9지망에 진성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공평하게 300명씩 배정했으면은. 진성에 9를 안 낸다고요. 225명이라서 진성이 9라고요.

☞학부모: 학교가 아니라 순위를 선택한 거라고요. 1순위 2순위 3순위를 선택해서.

☞양이원영: 마이크.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마 좀 진행해 주세요. 마이크 좀 주세요.

☞학부모: 그렇게 원칙이 중요하다면. 공평하게 배정해주면 된다고요.

☞학부모: 학교를 선택할 거면. 학교 원하는 학교 딱 집어서 그렇게 그렇게 배정하시죠.

☞진성고: **225명이라서 진성이 9지망이라고요. 인원수가 적어서. 인원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 저희가 평균화 지역인 건 혹시 알고 계셨어요.

☞진성고: 점점 더 안 선택하게 만들어 놨다구요.

교육감: 아니, 제가 어디든. 그거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다 똑같은 원칙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한번 나중에 들어 보세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학생 선택권을 존중했다는 원칙으로. 학생 선택권 존중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부모: 원칙이 중요합니까? 지금? 존중했으면 정원은 맞추셨어야죠..

☞진성고: 잠깐만. 제가 그거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행정이 책임지지 않고 학부모한테 돌린다는 책임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평준화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 학생수가 많았어요. 그러면 1지망에서 9지망까지도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시대 흐름에 따라 계속 학생수가 줄어 있어. 그러면 지망을 1망에서 2지망까지 갈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지망 방법을 바로 바꾸시고 그 다음 나머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에 평준화 지역에 들어올 때 그 방식을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작년에 충현고등학교에 이 문제가 생겼고 올해 진성고등학교가 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는 행정의

잘못이지. 학부모나 선택을 한 학생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받아들이고 이해할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지금 이 가정을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전문가가 들어와서 이걸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다면 내년에 또 이런 방법이 또 계속 실패할 거거든요. 아니면, 정말 1순위에서 3순위까지만 주고 그 나머지를 돌리든지. 아니면 1순위까지 9순위까지 주고 난 뒤에, 최저 최고점을 주고 70% 이하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난 뒤에. 2차에서 다시 아이들을 배정을 했으면. 이 문제까지 오지 않았죠. 그걸 작년에 충현고등학교가 그렇게 문제 제기할 때 우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도개시켜서 답변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검토하셔서 원래는 이 과정을 만들어 내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에서 학부모님들은 계속 교육청에 대한 불신만 가져갈 겁니다.

교육감: 학부모님의 잘못은 없어요. 우선 그 학부모님들께서 잘못하셨다, 뭐 학생들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같은 원칙을 경기도의 전체를 같은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까, 광명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거에 대해서 우선 제도적으로는 제일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진성고등학교를 갔는데.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좋은 교육받고 이런 환경이 제가 볼 때는 더 좋아지고 이렇게 지켜져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내신 제도의 상대 상대평가 때문에 망가지는 문제는 더 큰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는 거고. 세 번째. 광명 내 고등학교. 지금 문제에서 아마 여러분은. 광명의 진성고, 광명 지역의 문제. 광명 지역에 생긴 겁니다. 진성고등학교 이 문제는. 아마 여러분은 이거는 재배정을 해야 된다 하는 요청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그렇게. 그럼 재배정 할 때. 예를 들어서 진성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무슨 한도가 225명이고. 225명이 다 찰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배정 방식을 좀 바꾸어서라도 그렇게 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중요한, 더 많이 한다면 올해 예를 들어서 학생 수를 늘려서 배정한 학교를 줄여서라도. 이거를 정원을 같은 평준화니까 채워서 평준화의 일종의 취지에 맞게 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요청을 여러분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죠?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학생을 재배정하는 문제는. 진성이 지금 굉장히 특별한 문제가 지금 생겼고. 특히 인원을 많이 아마 감축함에 따라서 생긴 문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경기도 전체로 보면 재배정을 지금 논의하기는 어려운 단계에 와 있다 하는 점을 행정적으로 제가 말씀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건가? 어떻게? 그래서 조금 길게는 상대평가를.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빠르면 내년 초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마 늦어도 내년까지는 결정될 겁니다. 왜? 저희들이 교육감 회의에서 그거는 그렇게 시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니까. 그러면 당장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선. 요 문제는 저희들이 진성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아마 우리 해당과에서 비슷한 문제가 화성에서 작년에 있었어요. 화성에서. 그래서 화성에서 그 학교에 대해서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을 아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여러분께서도 오늘 한번 간단하게 설명 들으시고. 충분한 내용을. 여러분이 오늘 아마 또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과 소통의 기회를 다시 한번 갖도록 제가 지금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실무자들이랑 바로 다음주에 시간을 한번 좀 가지세요. 그렇게 정리하고 제 말씀은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학부모:** 교육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명절이 있잖아요.

☞ **양의원영:** 교육감님 지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여기 학부모님들이 행정 실패다. 배정 실패다. 이런 말을 왜 하냐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교육청에서 실패를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작년보다 올해 다른 학교에 배정 인원수를 늘렸어요. 네? 275명이었던 학교를 297명으로 늘려 놔 놓으셨다니까요. 여기 진성고등학교는 250명에서 225명으로 줄여 놔는데, 나머지 다른 학교는 2, 30명씩 다 늘려 놔어요. 뿐만 아니라. 배정 입학생수가 그 배정 인원수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행정 실패가 아니면 뭘니까? 작년에 150명으로. 원래 250명 배정 인원이 150명으로 줄어들었을 때 이미 상황을 인지하고. 그럼 올해는 다른 학교들의 배정 인원수를 줄여서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배치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행정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고. 재배정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번에 해결할 걸 요구하는 거를 1년 있다가 또

언제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학부모님들을 우롱하시는 거예요.

교육감: 제가 말씀드리지만. 행정 실패라고 말씀하시는데. 광명만 특별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다 이런 원칙에 의해서 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구요. 요점에 대해서

☞ 양이원영: 배정인원을 다 늘렸다고요?

☞ 진성고: 그럼, 이것만 질문에 답해 주고 가세요. 그러면 지금 광명시에서 내년에 만약에 같은 정책으로 이렇게 또 똑같은 정책으로 뽑으시면. 광명시에서 그 누구도 진성고는 9순위 이외에는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진성고 폐지하실 겁니까? 폐교하실 겁니까?

교육감: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만약에 학교가 더 노력을 해서도.

☞ 진성고: 아니요, **학교는 노력했어요.** 광명시 내에서 일대일 입학설명회를 한 학교는 진성고가 유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명이 된 건. 작년엔 150명이었기 때문이고. 내년엔 0명일 거라고요.

☞ 학부모: 당신들 알고 있어요? 여기가 평준화 지역인 건? 알고 있냐고요?

☞ 진성고: 폐교하실 거냐고요? 그러면.

☞ 학부모: 아니. 배정 문제를 해결 먼저 하셔야죠. 그리고 나서 지원을 가야죠. 그 다음 순서로.

☞ 학부모: 작년에는 왜 작년에 이 사태 알았어요? 모르셨어요. 알았잖아요. 보세요. 밑에 보시라고요.

교육청: 일단 일단은. 그 좀 아까 그 한부모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정원, 책정에 대한 부분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담당 실무 사무사님이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편성됐던 거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말씀을 할게요.

교육청. 고등학교 배치 담당 사무관 홍정기: 네. 고등학교 배치 담당 사무관 홍정기입니다. 정원은 사실은 이제 학교마다 수요가 좀 훨씬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좀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가 있고 적은 학교가 있고 그걸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년도의 모집 현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광명고는 좀 수요가 높게 나왔고, 진성고는 수요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으면, 학생의 선택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낮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가 높은 학교는 좀 더 정원을 많이 책정하고, 정원에 대한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학부모: 평준화인데. 왜 그러신 거예요. 왜. 그래서 정원을 채웠냐고요.

교육청. 고등학교 배치 담당 사무관 홍정기: 그래서 어느 정도 학부모. 광명 지역의 학부모들의 수요에 따라서 정원을 책정하는데. 큰 편차를 두지 않고 저희가 9학급에서 11학급까지. 최대 2학급밖에는 차이가 안 나게 이렇게 저희가 정원을 조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원을 조종한 대로. 학급을 다 학생들이 지망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안되게요.

☞ 학부모: 정원을 바닥에 잡았는데 그게 되는 소리예요?

☞ 학부모: 학생수는 100명인데, 총원을 1000명으로 잡았으면 900명이 미달이 나는 거예요. 그게 선호도입니까? 그게 교육청의 방침입니까?

☞ 진성고: 저 먼저 말씀 드릴게요. 아까 교육감님께서 처음에 포문을 여실 때 28명에서 29명으로 늘려서 정원을 다시 선출하는 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광명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면 **2024년 졸업생하고 2025년 졸업생 차이가 300명 이상이 납니다. 그런데 정원 산출하실 때는 50여명만 줄이셨어요. 그러면 250명이 더 많게 산출이 된 거예요.** 그 산출 기준이 뭐 예요? 이미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200명 이상이 미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1지망 선호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고교 학점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학교가 제일 1순위인거예요.**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 ☞ 양이원영: 저 공문이 징계를 받냐 안 받냐의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된 거네. 순위가 많이 쓴 학교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바꿔준 거예요. **전체 학생이 줄어들지 말지 그런 것은 신경 안 쓰고. 전체를 본 게 아니고. 근데 그 원칙은 학생들이 원하면 다 되는 거다. 그렇게 한거죠. 행정 실패죠. 행정에 대한 철학이 없는 거예요. 평준화에 대한 철학이 없고.**
- ☞ 진성고: 진성고가 아무리 입결이 좋고, 선생님이 아무리 훌륭하셔도. 100명이 안 되면 학생들이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광명시 인원이 2천 명 밖에 안 되는데. 학생이 300명이나 줄었는데. 내가 250명을 모집하겠다고 다른 학교는 300명을 모집하겠다고 하면. 이 학교는 저 학교보다 인원이 많네. 그럼, 그 학교를 다 지망하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작년에 실패를 하셨어요. 실패를 하시고 나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서 2026년 졸업생 110명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50명 미스난 것에서 110명 빼도 140명이 미달이에요.** 물론, 전입이 올 수 있으니까. 한 100명 정도 미달일 수 있다. 그러면 **감원을 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2명을 증원하셨어요. 그러면 총 150명이 미달이 납니다.** 그렇게 증원을 해 놓으시고. 우리의 **총 학생수보다 150명에서 200명을 더 많게 산출을 해 놓으시고.** 이제부터 원하는 학교에 배정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1지망 선택한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는 좋은 제도를 마련했다. 이거에 대한 홍보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 ☞ 학부모: 80% 채우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1순위?
- ☞ 진성고: 정원 산출의 기준이 뭐 예요? 아까 교육감님 말씀해도 위배되잖아요. 28명에서 29명으로 늘리는 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걸 결국 28명에서 29명이 아니라, 28명에서 40명으로 늘린 거랑 똑 같잖아.
- ☞ 학부모: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지금은 행정상의 그 오류나 그런 게 없다고 하지만. 저희 모르는 부모들은요.

교육청, 고등학교 배치 담당 사무관 홍정기: 설명을 좀. 먼저 정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정원을 짤 때는 졸업생수를 기초로 해서 전년도에 미달 학생수, 그 다음에 졸업 중3학생들의 증가 학생수를 감안해서. 미달이 나면 줄여야 되고 또 졸업 학생수가 많아지면 늘려야 되겠죠. 근데 작년에 미달이 아마 200여명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가 학생수는 11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정원을 책정할 때는 여유분을 두고 책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정원 범위 내에서 선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원이 현원보다 작게 되면 그 학생들은 다 탈락이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진학을 못 하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원 자체는 조금 더 현원보다는 보수적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문제는 사실. 정원과 배정이 같이 좀 보조를 맞춰서 풀어놔야 되는 문제라서. 정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 ☞ 양이원영: 그게 행정 실패라고.
- ☞ 학부모: 저는 다 이해하고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 같은 경우, 부모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몇몇 학부모님들께서는. 다 모르겠고. 그런 거 다 모르겠고. 교육적인 것도 모르겠고. 행정도 모르겠고. 그냥 저희는 작년에 미달사태가 났을 때. 정보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성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교육 설명회를 듣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 다른 학교 다 알아요. 다른 학교에 정보도 다 얻었을 거 아니에요. **인기 순위가 진짜 선호 비선호도의 선호도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학교 인원. 그냥 인원이 많은 대로 모집 인원엔 많은 쪽으로 쏠릴 수 있겠다** 싶어서. 다 엄마들이 다 그거를 다 깨달아서. 진성에서 그냥 왜 150명이 왔는지. 엄마들이 가고 싶어도 안 간 엄마들이 많아요. 가고 싶어도. 어? 내년엔 더 불안한데? 학교 이미지를 그냥 교육청에서 그냥 깎아 내린 게 아닌가. 물론 내신에 좀 입결이 어려운 건 사실이나. 그것도 다 그 미달된 사건 때문에. 저는 그래도. 그래도 학교를 믿고. 소문에 연연하지 않고 **225명을 채워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간 엄마들이 대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선호의 문제여서 9순위에서 밀려서 진성 온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없고. 3지망, 4지망으로 간 아이들도 진성으로 온 애들도 많고. 그럼 5지망으로 썼던 다른 학교에 간 애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3순위까지는 자기 가고 싶은 학교를 지망하는 게 많은데. 4지망부터는 가고 싶은 학교가

없어요. 거기서 그냥 애들이 그냥 순위 쓰거나 거리순으로 아이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거리순도 문제가 되는 게. 원래 교육청에서 그냥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지방부터 엄마들이 고민하고 아이들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진성이 비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작년의 데이터베이스로만 움직인 엄마들도 많아요. 근데 이 사태가 난 거는. **비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시스템을 믿고 저희는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알았다면 어? 비선호도에 문제가 있었으면 아예 안 썼죠. 진성고는. 아, 내년에는 이게 2, 30명밖에 안 되네? 하고 더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교육청을 믿고 쓴 엄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선호도의 비선호도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❶ 학부모: 잠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정원 계산 방식이 맞다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저번 계산 방식은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세팅할 때, 프로그래밍할 때 작성해서 넣는 거고요. 그거를 보완하고 문제점이 이상징후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멍청하게, 엑셀 돌아가게. 엑셀 돌아가는 거. 어, 이게 계산 잘됐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엑셀이 돌아가서 결과값이 나오면. 그거에 이상이 있으면 그거를 측정하시는 게 그 자리라고요.**

❷ 진성고: 사무관님. 아까 설명하실 때. 이렇게 원래 **2025년도의 배정수에 비해서 2026년대에 배정인원을 늘린 게 학생 선호도가 좋았다라고 많은 학교들을 늘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무관님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나면. 그럼 정원을 주지 말고. **1순위 학교 많이 가면 1순위 학교만 남겨 놓고 나머지 다 폐교를 하셔야지.** 그게 그렇게 설명하시면 저희 하나도 안 받아들이죠. 그리고 저는 교육감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나하면. 저는 **경기도 교육청이 이번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배정에 사용된 배정 기준과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객관적 검정 절차를 거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경기도에서 자꾸 이렇게 발생하는 학교가 광명만의 문제, 과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성남과 수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보안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런 보안을 한 지역이 있는데. 왜 그거를 자꾸 **작년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완하지 않으시고 행정을 그대로 밀고 나가시냐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❸ 학부모: 책임지시죠? 책임지세요.

❹ 학부모: 계산 방식이 틀렸어요. 애초에.

❺ 학부모: 저희는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교육청, 고등학교 배치 담당 사무관 홍정기: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요구 사항도 정확하게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 좀 드리면.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정원은 사실 정원을 짤 때 저희가 여유분을 두고 짜는데 그 여유분이, 미달이 학교가 9개 학교에 고르게 분산돼서 나온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은 그게 어떤 한 학교에 편중돼서 나오는 문제 아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정원을 현원과 똑같이 편성한다. 이거는 예측의 문제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걸 배정으로 조금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어떠한. 조금 더 가지 않는 학교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한 학교에 다 몰아놓지 말고. 어느 정도 분산해서 배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신 거 아닌가요? 사실.

❶ 학부모: 배려 가. 배려가 아니에요.

❷ 양의원영: 배려가 아니에요.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요. 사과를. **사과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배려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❸ 진성고: **배정인원을 늘린 게 핵심이에요.**

교육청, 고등학교 배치 담당 사무관 홍정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니까 정원을 책정하는 부분이 있고, 배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❶ 학부모: 배려가 아니라. 이상 징후가 작년에 나왔잖아요. 그럼, 그거를 수정해야죠. 우리가 거지예요?.

배려한다고?

- 진성고: 배정 인원을 늘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해주십시오. 따라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주십시오. 제가 배정 인원 늘리셨다고 했잖아요. 그 **배정인원 늘리시는 것을 저희 학교 9개. 예를 들어서 150명이었으면 예상 추가 인원을 150명을 생각했으면 그걸로 9개로 나누셨어요** 죠. 그 모집 인원에서 그 **9개의 15명을 다 뺐었어야죠. 그리고 돌리고 그 자리를 남겨 놔었어야죠.** 그렇게 돌리셨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산수. 그죠? 이거 산수. 이거 중학교 아니 초등학교만 나와도 되요. 진짜 안타까워요.
- 양이원영: 어떻게 배려를 얘기를 해?
- 진성고: 모집 인원이 많다는 걸 요구한 게 아니라. **추가된 예상을 각 학교마다 다 뺐 상태에서 돌렸어야** 죠.
- 학부모: 아니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는 결과를 한 달 있다가 결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못 보셨어요? 진성고에 90명밖에 안 갔네. 다른 학교 300명 갔는데. 이거 엄마들 가만히 안 있겠네.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은요. 저희가 일요일 날 교복을 맞추었고 **저희가 금요일 날 발표를 들었는데. 광명교육지원청은 자기네들도 금요일 날 알았데요.** 행정은 어떻게 금요일 날 우리랑 똑같이 알 수가 있어요? 그날 알았데요. 거기는. 그게 변명이에요. 그게. 교복집이 더 빨라요. 교복집이 제일 빨라요. 저희 일요일 날 교복 맞추러 갔을 때 광명 우리 진성고가 아 90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 학부모: 어이가 없어가지고. 교복집이 교복집이 제일 빨라요. 학생수 90명이라는 거.
- 학부모: 당신들은 교복집한테 먼저 데이터를 줘요.?
- 학부모: 중학교도 모르고. 해당 고등학교도 모르고.

안성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여기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안이라고 나온 것들을 큰 기대를 하고 오셨잖아요. 지금 중등부나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9시 반에 잡혔었는데, 교육감님이 딱 나오신 거 보니까. 아 우리한테 큰 기대를 주시겠구나 하셨는데. 기대되시던가요?

학부모: 아니요.

안성환: 지금 말씀하신 대안이라고 한 것은 평가 방법을. 상대 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바꾼 것도. 내년엔 이렇게 한 번 추진해서 좀 그게 가장 큰 제안이라고 해 주신 거 같은데. 전혀 여기에 있는 분들하고 눈높이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님이 설명하신 내용도 생각을 해 보세요. **150명에서 90명으로 줄었는데. 이 상태로 가면 내년에는 50명 이하로 줄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에. 학교를 폐교하겠다는 목표가 아닌 이상은. 행정을 갖다가 방기한 거예요. 책임을 직무를 유기한 거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분개하고 있는데. 계속 숫자 노름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했고. 그 원칙을 우리는 지켜간다. 이렇게 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이 요구한 건 뭐겠습니까? **재배정을 해 달라. 재배정이 안 되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합당한 원가를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을 요구하는데. 원칙만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면 교육감님 시간만 계속 낭비하시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화를 더 불러요. 이것은 대화가 아니고 협상도 아니고요. 소통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의 요구를 듣게 해 주셔야 죠. 일부라도.

교육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부모: 저희가 진짜 바라는 거는. 재배정이고 뭐 다 필요 없고요.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애들 숫자만 만들어 주세요. 숫자. 원가를 하려면 숫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숫자 얘기 그만하세요. 진짜!

안성환: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헌법에 보장된 학습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제 90명이란 분들이 위기 의식을 가져서 스스로 자퇴를 하거나 전학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있는

사람도 줄어들다가 내년에 배정 이 상태로 지금 사무관님이 설명한 대로 하면 50명 이하로 줄어들어요. 그럼, 학교를 강제적으로 폐교하는 역할을 교육감님이 하시는 거예요. 직무를 방기하고 유기해서 이런 내용의 책임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이거예요. 진성고가 명문 사립고로 있었지만, 우리로 인해서. 우리로부터. 교육감님의 행정 부제로 행정 실패로 참담하게 무너지는 꼴에 자기 자녀들이 희생당한다고 생각해서 새벽 아침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물론 교육감님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지만. 여기 내준 만큼의 합당하는 해답을 내주셔야지. 아까 절대 평가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희망을 주는 것은. 정말, 여기 있는 분들한테 체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여기 있는 분들한테. 그런 희망이 되는 말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재배정에 대응하는 그만한 상당한 내용을 발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네. 하여튼 저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재배정을 한다든가 이거를 다시 백지화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은 어렵습니다.

☞ **학부모:** 제가 재배정이 아니라 재배정 밑에 거라도, 뭘 해 달라는 거 아니요.

교육감: 예. 그래서 결국 진성고등학교에 가신 학부모들이 학생수가 적어서. 우선 일차적으로는 다음에 내신 평가에서의 불리.

☞ **학부모:** 내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신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교육감: 예, 좀 보세요. 그래서 지금 학교의 교육이 인원이 줄어들어서 혹시 학교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학교를 가는데 학교의 부실 교육. 어떤 이런 가능성. 이런 거를 걱정하실 텐데. 그 문제는 저희도 한때 명문학교가 내신, 이런 이 제도. 더군다나 배정의 방식 때문에 학교가 피해를 받는 것은 저희도 이거는 잘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 **학부모:** 그럼 애초에. 그러면 인원 채워 주십시오.

교육감: 인원 채우는 거는 재배정의 문제인데. 그 문제는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잖아요.

☞ **학부모:** 안 되면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인원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감: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학교하고 우리 부서하고 해서. 어떻게 학교에 지금 입학한 학생들이 광명에 입학해서 진짜 좋은 교육을 받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안했다고 한 것은 배정을 다시 한 게 아니고, 그 학교가 교육력이 높아지도록 어쨌든 지원해서 그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도록.

☞ **진성고:** 지금 이 사태에서 교육력이 높아지겠냐고요? 지금. 그거는 **현실적으로 인원을 채우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교육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지금 배정 문제는 중학교 배정처럼. 예를 들어서 근거리 배정에 강제로 배정하는 방식이 아니면 지금 이런 문제들은 계속 사실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지금 금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있는 그대로 제 말씀드리는데. 제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걸 잘못했으니까 완전히 이걸 광명은 다시 하겠다 이걸 못 합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그래서 보완을. 요 문제는 그래서.

☞ **학부모:** 정원 자체를 제대로 하셨어야죠.

☞ **학부모:** **작년에도 그래놓고 올해 또 그랬잖아요.**

☞ **학부모:** 이 상태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어떻게 다녀요.

☞ **학부모:** 교육감님. 그러면 저희 아이들의 불이익을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상대평가에서 보완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숫자를? 안되지 않아요. 상대평가 문제를? **상대평가 문제는 안 되잖아요. 교육감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근데 교육감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그냥 교육감 결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배정. **배정 산출의 오류**이고 이거를 조정해서. 이걸 분명한 명백한 오류이기 때문에 그냥 재배정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감: 고등학교 배정은. 이거는 학생들의 선택의 의사를 존중한다. 이거를 말씀드렸잖아요.

☞ **학부모:** 저희 아이도 선택했습니다. 광명시에다가 정확한 데이터를 드렸어요.

교육감: 제 말씀 제 말씀대로 평준화라 하더라도.

☞ **학부모:** 재배정을 하면 아무도 불만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감: 그래서 제가요. 요 문제는 금년 문제를 다시 원상 회복하고 백지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학부모:** 어려운 거지. 하실 수는 있지 않습니다. 배정을 늘린 게. 이걸 잘못된 거예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하셨잖아요.

☞ **양의원영:**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지.

☞ **안성환:** 예. 광명시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금 2년째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충현고가 있었고 올해도 이런 문제가 있을 걸 예상을 하고. 우리 광명교육지원청과 여기 경기도 교육청과 김남희 국회의원이 간담회를 한적이 한번 있습니다. 김남희 의원실에 같이 불러서 분명히 이런 사태가 올 것 같은 분위기가 있으니.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염려를 하고 했는데. 우리 **광명교육지원청에 물어보면 뭐라하는지 아십니까? 경기도 교육청이 하는 일이다. 우리는 모른다. 경기도 교육청에 이야기하면. 또 이미 아까 산술적으로 숫자 저렇게 노른말만** 해서 이런 실패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 광명교육지원청은 경기도 교육청이 하는 뭘 일을 하는 겁니까. 같은 지역에 있는 학교 그런 것도 다 살피지도 않고 경기도 교육청 핑계만 대고 있어요. 경기도 교육청에 하는 일이다. 그럼 우리 광명교육지원청은 지금 뭐 하는 데입니까? 교육감님? 그냥 거기는 그냥 월급 받아먹는데요?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어머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말 행정 실패예요. 어렵지만 다시 재배정을 하든 뭐든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정말 이게. 정말 깊이 좀 생각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진성고등학교 내년에 학교를 없애려고 지금부터 작전하고 이러는 겁니까?

☞ **양의원영:** 저기 교육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나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교육감을 왜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기에 계시는 사무관님은 원칙대로 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원칙대로 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냥 관행대로. 해오던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뭔가 뛰어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책임을 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표를 합니다. 지금 **임태희 교육감님은 누군가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고요. 시민들이 뽑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권한을 드린 거예요.** 원칙적으로 사무관이나 할 대답을 하라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사무관은 나는 매뉴얼대로 했다 그 말밖에 못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은.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은. 그걸 뛰어넘는 책임을 발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밑에 직원이 어떻게든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한 것에 대해서, 본보기로 징계를 하셔야죠. 다음부터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아니면 징계를 할 게 아니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선출을 하는 거고. 교육감이 정치인이란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관과 똑같은 얘기 듣자고 온 게 아니고. 교육감이라면. 특히나 이번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을 듣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네. 여러 가지. 거의 뭐. 하여튼 정치적 저의 그 의미까지 이렇게 섞어서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어쨌든 이런 그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은. 광명교육지원청의 문제도 아니고 저희 경기도 교육청. 궁극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교육을 총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교육감에 책임하에서 이 문제도 풀어야 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감도 법이 있고, 원칙이 있고, 이런 거를 존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광명에서 지금 발생한 상황은 법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당연히 그건 잘못된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실 225명의 정원을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광희고등학교는 260명에서 전체. 이게 배정을 그 학교에서 제가 볼 때 학교별로 배정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우리는 뭐냐면. 학생들의 의사를 1순위, 2순위, 3순위의 선호도를 존중해서 배정을 하는 게 그동안은 일관성 있게 지키는 원칙이고 이번에도 똑같이 그 원칙에서 했다 하는 점 때문에. 교육감으로서는 그 실무적으로 그렇게 배정한 거에 대해서, 크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이 수정 방법이 지금 현재 이거를 재배정을 완전히 다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저는 선택하기 어려운 이게 방법이다.

☞ 양의원영: 애초에 배정인원을 늘리는 실수를 하신 거예요.

교육감: 문제는. 요 문제는. 제가 지금 교육부하고 저희 경기도에서 아무리 논의를 해 봐도.

☞ 학부모: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는데 어떻게 법을 어겨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계산 잘못이라 그거를 대고 그게 잘못이 아니니 배정을 안 하시겠다 하십니까.

☞ 학부모: 교육감 권한입니다. 다 알아봤습니다.

교육감: 제 말씀,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그래서 한번요. 문제는 오늘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좀 거의 지금 같은 마음으로 이 준비를 하시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며칠 동안 계속 지금 고민하고 의논을 하면서 해법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해법을 포함해서 해법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어떤 원칙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었던 내용들이 정말 변경의 가능성은 없는 건가 하는 거부터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좀 참고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간부들하고 요 문제는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다만, 광명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저희들이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의 배정이기 때문에 광명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사실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제가 볼 때 그 문제는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왜냐면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문제를 충분히 예견했을 테고. 그러면은. 해당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도교육청의 해당 부서가 논의할 때는. 당연히 개별적인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했어야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은 그것은 저희들의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제 말씀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하는데. 내년부터 바꾸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런 고민을. 한번 금년부터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문제지.

☞ 학부모: 작년에도 올해 해주신다면서요. 작년에도 그랬다고요. 제 애가 중3인데 절대 진성고 안 보냅니다.

교육감: 지금 제가 볼 때 이 상태로 가면 진성고등학교는 문닫게 될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많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근데 교육청은 선택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명문학교들이 문 닫고. 예를 들어서 학교가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 그래도 교육적으로도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 학부모: 지금, 학생수가 없어서 학교가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무슨 말씀지 알겠어요?

☞ 학부모: 사무관님이 전적으로 다 책임지시던지요.

교육감: 그래서 그래서요. 문제는 뭐 사무관을 징계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될 게 아니고. 그래서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이 자리에 좀 나와 있는 간부들한테. 가서 제가 좀 한번 최대한도 여러분 하고도 말씀을 더 나눠 볼 기회를 갖고. 제가 결단할 부분이 있으면 결단해서 요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부모: 답을 제가 듣게요. 잠깐만요. 사람을 채워 주신다고 그리고 고민을 하세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채워주세요. 저희가 그냥 기다려 드릴 게요.

☞ 학부모: 기다려드릴 테니까. 회의하시고 지금 결과를 주십시오.

교육감: 여러분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그러니까 저희들 왜냐면 우리 담당자들도 조금 더 규정의 문제 다른

지역과의 문제 해박야. 여러분, 제 말씀대로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다 공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규정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교육감이 결단할 수 있는 문제는 결단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는데 이 문제는 조금 짚어보는 문제를 짚어보면서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거나 하는 것은 사실 행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

☞ 학부모: 책임이라는 게 아니라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교육감: 그래요.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죠.

☞ 학부모: 네. 그래서 아무도 잘못이 없고 시스템 자체가 문제. **시스템 잘못 인정하시고 시스템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시스템이 문제였으니까. 시스템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고쳐 주겠다. 그래서 너희 공부할 수도 있게. **우리 학생들 공부할 수 있게 숫자 채워 주겠다. 그거 딱 한 마디하고. 그리고 안 찾으세요.** 안은 왜 자꾸 못 찾는다고 생각하실까? 답답하게.

☞ 학부모: 아까 강제 배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알아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 지망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1지망을 써도 그 학교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기가 선호하는 책임지지 못할 학교를 1지망으로 쓰지 않아요. 떨어지면 원하지 않은 학교를 가게 되니까. 그걸 **아이들도 다 알고 감안하고 1지망부터 9지망까지 다 쓴 단 말이에요.** 원하지 않는 9지망에 갈 거니까 아이들도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원을 앞에서 그렇게 다 채워버리고 9지망에는 가려고.

교육감: 1지망했다고 해서 제일 원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이해 충분히 했습니다. 그렇죠. 배정이 우선 제일 가고 싶은 학교가 아니고 제일 갈 가능성이 좋은 데로 1지망으로 선택하는 학교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그런 문제들 아마 우리 실무자들도, 간부들도 다 수십년간 담당해 와서. 한번 요 문제는. 빠른 시내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

☞ 학부모: 저희 많이 기다렸습니다. 논의를 하시고요. 저희 가지 않고 여기서 어느 공간에서 기다릴 게요. 3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10시간이 되었든요. 결론은 가져오시죠. 저희 기다리겠습니다.

교육감: 제가 여기서 약속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오늘 저 충분히 여러분 의사는 전달됐으니까. 오늘 해산하시고 저희들이 이런 기회를 오늘 날짜를 잡으세요. 여기서 누구 자리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 학부모: 아니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려주세요. 저희 기다릴게요. **최소인원을 보장해주세요.**

교육감: 잠깐만요. 요 문제에 대해서는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 들으시고. 나중에 의논해서 정하시면.

☞ 학부모: 피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도망가시는 거예요? 지금? 교육감님. 교육감님의 권한이 대통령의 지시도 따르지 않아도 될 만큼 막강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결단을 내리시면. 이 문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 가장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간단한 겁니다.

교육청: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 학부모: 광명은 광명시 내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명은 단일학군입니다.** 광명 학군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교육감: 경기도 저녁에 31개 시군에 안 그런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원칙으로 했는데

☞ 학부모: 90명만 배정된 학교가 있나요? 없습니다. 정원 대비 학생수가 이렇게나 차이나는 곳이 있습니까? 광명이 유일해요. 경기도 전역에 광명이 유일하다고요. 그리고 그것도 2년 연속으로.

교육감: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광명에서 특별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 학부모: 그리고 저분이 말씀하는 것대로 해가지고. 배정시 반영이 되가지고. 그게 추려져 가지고 그게 반영이

돼 가지고 배정할 때 발표 전에 수정이 되었어야 됐는데.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배정한 사람. 그 사람은.

☞학부모: 90명 그냥 배정하면 끝이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학부모: 90명을 배정했잖아요.

교육감: 지금 제 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제 말씀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방법은 다른 데 하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학부모: 광명이 유일합니다.

☞양의원영: 아니라고요.

교육감: 광명이 유일해요?

☞학부모: 표를 보고. 한번 보세요. 광명이 유일해요. 저희가 표 다 봤습니다.

교육감: 아니, 90명은 알지만.

☞학부모: 저희가 2~30명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교육감: 자, 제 말씀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 말씀 여기도.

☞학부모: 경기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교육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공분하지 마시고. 제 말씀.

☞학부모: 누가 인정합니까? 지금 유치원도 한 반에 15명 이상입니다.

☞학부모: 제도만 계속 한번 말씀하시니까. 저희 말을 못 듣고 있잖아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교육감: 제 말씀 제 말씀 들어보세요. 자, 제 말씀. 그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학부모: 다른 학교 300명. 지금 여기 지정해 놓고. 중학교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인원을 지정해 놓고. 이게 원칙이라고 하면. 누가 이해합니다. 미리 알려주셔야. 여기 일하시는 분들. 자녀분들이 90명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교육감: 제 말 들어 보세요. 그래서 자 우선.

☞학부모: 이상하게 배정해놓고서 왜 아이들이 희망한 대로 했다고 자꾸 핑계를 대십니까? 그러면 2순위까지는 왜 쓰라고 하는 겁니까? 1순위만 쓰지. 그러면 광명 내 나머지 다른 학교는 다 폐교를 시키시지.

☞진성고: 핵심은 타 학교 배정원을 늘렸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세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학부모: 그것도 28명에 육박하게요. 학급당 딱 학생수를.

교육감: 지금 그니까 어디든지 다 어디든 다 현보다는 정원을 여유 있게. 제 말씀.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아니, 여러분이. 우선 여러분. 경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명에 다른 기준 적용했습니까? 아니, 제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께서 이것은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해법이 이래도.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여러분.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경기도 전체 지역은 같은 원칙에 의해서 배정을 했는데.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학부모: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다른 데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2년째? 그것도 90명으로. 다른 학교랑 200명 넘게 차이가 나는 학교가 있습니까? 평준화 지역인데.

☞안성환: 교육감님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하셔야죠.

☞학부모: 원칙은 이제 그만 이야기하시라고요. 그만 이야기 하시라고요. 그만.

☞학부모: 지켜워요. 일주일째예요. 일주일째 같은 말만 듣고 있어요.

☞ 학부모: 300명 이상 이렇게 인원이 많게 배정이 되나요?

☞ 학부모: 아니 저희 2~30명 부족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육감: 그러니까 지금 뭐냐하면, 광명에 특수한 상황이 생긴 거라 여러분이 지금 오신 거다. 특수한 상황이. 그래서 여기 오신 거다. 특수한 상황이 생겨서 여러분 오셨는데, 다른 데는 다 똑같은 원칙을 정의했는데 왜 광명에서만 특수한 상황이 생겼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 들었기 때문에 광명의 특수한 사정은 자칫 학교에 대한 이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도 발전할 수 있겠다. 광명시하고, 요 문제는 광명교육지원청하고 좀 더 소통했더라면은 사전에 조금 보완할 수도 있었을 텐데.

☞ 학부모: 그 특수한 상황을 당신들이 만들었잖아요.

☞ 학부모: 여기 재배정 받으신 분 계시데요. 여기, 저희도 재배정을 받아야 합니다.

☞ 학부모: 작년에도 이미. 그게 이미 작년에 이야기 했잖아요. 작년에. 작년에는 그러면 뭐하신 거예요?

교육감: 작년에. 작년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왜 반영이 안 됐어요?

☞ 학부모: 모르고 있었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해요.

☞ 양의원영: 마이크 줘요. 마이크 한 사람한테. 마이크 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세요. 한 사람. 여기 대표님 대표. 대표님. 저 봐주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말씀 말씀하세요. 줘보세요. 줘보세요. 저기 교육감님. 지금. 교육감님. 분노하신 거에 대해서 좀 진정을 좀 하고. 진정을 좀 하고. 지금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왜 화를 내시냐면. **작년에 250명 중에서 150명밖에 안 됐어요. 250명 중에서. 그래서 100명이 부족했잖아요. 다른 학교는 다 250명, 300명이 됐는데. 여기만 250명 중에 150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도 얘기를 했어요. 알고 있죠? 알고 있으시죠? 작년에도 얘기를 했어요. 알고 있으시죠? 예. 그래서 시정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다른 학교의 배정인원을 늘려버렸어요. 차라리 그 배정인원이라도 안 늘었으면. 작년 수준에 150명 정도는 그래도 됐을 텐데. 작년에 그 문제가 생긴 다음에. 올해 조치를 한다고 한 그 결과. 다른 지역, 다른 학교의 배정인원은 2, 30명을 늘여버리고. 뿐만 아니라 배정인원에 초과해서 배정을 시켰어요. 그러니 여기가 150명도 안 된 거예요. 그 분노의 원인을 아셔야 돼.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원칙대로 했다. 원래대로 했고 광명이 특수하다. 다른 데도 그런 이야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있는 학부모님들은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하셔야 된다. 첫 번째. **작년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올해 왜 그거를 보정하지 않고 다른 학교의 학생수를 늘렸냐? 물어봤더니,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랬다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학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럴 거면 1지망만 쓰지. 왜 2지망, 3지망 왜 쓰니까? 이해돼요? 그 이유는 1지망만 쓰는 걸로 해서 사람이 많아져서 배정인원을 늘려버리면. 그럼 2지망, 3지망으로 내려가는 다른 학교는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행정 실패라고 하는 이유가 그 건에 대해서 이미 인지됐고. 그리고 한 달 전에 김남희 의원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수정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거니까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 원칙 이야기는 그만 하세요.

교육감: 제가 광명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 특수한 지역의 문제로 이거는 생길 수가 있었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다른 데하고 같이 한다는 원칙 때문에 이게 아마 지금 빠진 거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광명에서만 이게 생긴 게. 때문에 광명의 문제로만 생각해서.

☞ 양의원영: 아니라니까.

교육감: 제 말씀 들으세요. 제 말씀 들으세요. 제 말씀 들으세요. 그래서. 문제는. 광명 그래서 광명의. 요 문제는 광명에만 해당하는 문제로. 저희들이 이제 좀 그 왜냐면. 판데 핑계대지 않고.

☞ 양이원영: 마이크 주세요. 여기 주세요. 마이크 좀 주세요. 주세요.

☞ 진성고: 방조하신 거요 저는 이 문제가 뭐라고 생각냐면. 평준화 지역에서 이렇게 광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학교 학교가 반복적 미달로 우선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선택 이후에 우리가 교육청에 어떤 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행정해서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자꾸 놓치셨는데. 자꾸 이렇게 원론적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강분하고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교육청이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고민하셔서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답변이 전혀 안 되니까

교육감: 우선 시스템 문제는. 시스템 문제는 저희도 개편하는 거를 그렇죠. 내년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제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일반론으로 광명의 문제를, 무슨 일반론을 핑계대면서 접근하진 않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다 듣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광명의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이 그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진성고: 자, 교육감이 계실 때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게. 재조정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 돌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2지망, 3지망, 4지망 이렇게 쪽 나왔는 선택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대상으로 저는 진성고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교육 과정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그들한테 다시 진성고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마저도 더 준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계속 가면 이게 진성고등학교를.

교육감: 지금 바로 이제 그런 이 문제들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문제는.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설명하시고.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좀 의회가 바로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 학부모: 자, 여기 확답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 건가요?

교육감: 지금 국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두 국장님이 의논하셔서. 어떤 요 문제는 광명의 특별한 문제인데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 학부모: 교육감님 나가시기 전에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은 아직 충분해요.** 그래서 이 사태를 그냥 관가하지 마시고. 이게 넘어 버리면. 정말 사태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게. 저희 애들 문제를 축소하지 마시고 제대로 잡아 주십시오.

교육감: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여러분한테 들은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워낙 지금 여러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저희들이 경과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제가 원칙을 일으켰다. 근데 지금 보기에 아까 광명의 특별한 문제가 작년에 생겼을 때 지적을 하셨고. 올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개선을 하려는 우리들이 고민을 하고. 그래도 만약에 이게 이랬다는 설명을 하고. 이런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책임이. 어떻게 보면은 이건 교육감이 최종 책임자니까 교육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광명의 문제를 일반화시켜서 피하지 말고. 광명의 문제를 한번 광명의 문제로 해서. 별도로 풀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의논토록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들어 보시고. 왜냐면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해결을 안 하려면 계속 핑계를 되겠죠. 해결 안 하려면. 해결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이렇게 남은 분들이니까. 다 지금 하는 것은 어떻게든.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보기 위한 이런 자리니까. 여러분이 좀 차분하게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내시는 거 저한테 다 내시고. 그렇게 해 주시겠죠. 여러분 말씀 좀 나눠 보세요. 그래서 걱정이 많고. 이게 내가 볼 때 해법을 찾아보라 이게. 자 그렇게.

☞ 안성환: 교육감님 처음에 오실 때 앉아서 멘트 한 내용하고 나가실 때 멘트 한 내용이 많이 다르시죠? 회의 때 스테디하고 내용하고 많이 다르죠? 지금 광명의 경우를 일반화시켜서 일반 원칙으로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내용을 들어보고 나니까. 광명은 일반화로 해서 되지 않고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 그거를 고려한

모집을 했어야 된다는 내용의 행정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사과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기까지 챙기지 못하신 거잖아요. 교육감이.

교육감: 제가 그래서. 이 사태가 생기게 된 것은. 이유가 어떻든 제가 책임져야지요.

③ **학부모:** 교육관님 책임 말고요. 사과 좀 하고 가세요. 사과.

③ **안성환:** 사과도 하셔야 되고. 밑에다 명확하게 지시하세요. 언제까지 광명의 특수한 상황 부분은 언제까지 해결을 하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서 죠. 교육감님.

교육감: 요 문제는. 그러니까.

③ **안성환:** 제가 마이크 갖다 드릴 게요. 그렇게 말씀하고 가야 돼요.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시라고요. 대책이 필요합니다.

③ **학부모:** 사과하십시오.

③ **학부모:** 사과가 아니라. 필요한 것은 대책입니다.

교육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제가 책임을 피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이런 문제가. 학부모님들께서도 크게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오시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가 발생하고. 이유 여하를 망론하고 교육청 책임입니다. 교육청 책임이고. 이거는 최종적인 교육청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당연히 이거는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자리 왔고. 여러분이 자리까지 오지게 된 거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 전체가 저는 이걸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려요. 왜냐면 사실은 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텐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전해야 이게 소통이 되나. 아마, 하시는 실망도 상당히 있으셨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든지 이 교육감이 이 광명교육지원청에 또 우리 저 담당 부서가 의논하는 과정에 진작 반영이 되고 고민했어야 할 일을 이제 와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걸 행정적으로 아주 잘못된 거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잘못을 전 인정 인정하고. 이 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작년부터 누적된 이런 문제였고. 그래서 이거는 광명만의 특별한 문제로 한번 해법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오기 전에도.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해 보라.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이 공유를 하고 왔는데. 조금 한번 말씀 들어보고 소통 기회를 더 한번 받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께 한번. 정말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않을 정도의 해법을 한번 찾도록. 저희가 최대한 우리 실무자하고 있어요. 어렵도록 그렇게 제가 챙기겠습니다. 고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저는 회의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까지 아침 일찍 오셔서 장시간 동안.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미리미리 소통했으면. 과정에서 소통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문제를. 여기까지 오지게 된 거서 정말 교육감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려요.

③ **학부모:** 교육감이 말씀하실 때요. 우리 실무자님들이 저희랑 대화를 했을 때 재배정은 무조건 원칙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실 거면 저희랑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재배정을 열어 놓고 가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전화 민원을 엄청 많이 했을 때 그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하셔 가지고. 대화가 안 됐거든요. 열어주시고 가야 합니다.

③ **학부모:** 잠시만요. 말씀드려요. 잠시만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 다 아시잖아요. 저희한테 규정, 매뉴얼, 그 어떤 것도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제발 부탁인데. 저희한테 그런 말씀 한 마디도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분명히 지금 **임태희 교육감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해결 방안을 찾아보게 하겠다. 실무자들한테 그렇게 해결 방안 찾아보라고 하고 나가셨잖아요.** 잘 들으셨죠? 그러면 저희 쳐다보시지 마시고. 각각 세 분이서 쳐다보시고선. 결과 가지고 오세요. 결과 가지고 오셔서 저희 숫자만 공부할 수 있는 애들 숫자만 늘려 주시면 돼요. 근데 그 방안을 아주아주 피하기 좋게 말씀하시죠. 재배정은 원칙 불가다.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시잖아요. 찾을 수 있잖아요. 그 방안에서. 있어. 분명히 있어요. 그니까. 그거를 찾아가시고 주세요. 재배정 받은 사례도 있어요.

☞ 학부모: 교육감님이 하신 말씀 다시 되풀이하실 것 같으면 더 이상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청: 학부모님 말씀 이제 충분히 많이 들었고요. 이제 우려하시는데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서류상으로도 좀 주신 거 같고 하니까. 우리 중등교육과 그리고 학교 설립과. 두 부서가 관련된 부서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계속 얘기하다 보면 저희들도 핑계 아닌 핑계가도 나올 거고, 학부모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충분히 전달하셨던 것을 좀 인지했으니까. 그렇게만 하시고. 실무 부서끼리. 요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만큼 논의를 좀 깊숙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논의하겠습니까?

☞ 학부모: 저희는. 여기서 기다릴 게요. 저희가 기다릴 게요. 뭐 하셨어요?

교육청: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학부모님들의 시간이 소중한데 말씀드리는데.

☞ 학부모: 시간이 해결될 게. 아니에요. 지금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시죠. 교육집에서는 이미 교복 안 찾아가는 6명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미 빠졌다는 거예요. 안 다니려고.

☞ 학부모: 참고로 안 찾아가는 사람은 6명이구요. 안 다닌다고 집어 던지어 간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몇 명이 남는 거야?

☞ 학부모: 잠시만 잠시만요. 그리고 분명히 교육감님이 **임태희 교육감이 확실하게 했어요. 잘못했고. 확인 안 했고. 확인 안 한 상태에서 절차 진행했고. 그거 인정하고 가셨어요.** 저희는 이 잘못된 거 분명히 행정 소송으로, 우리 요구 사항 안 해주시면, 행정 소송 갈 거고요. 진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시고 와주세요. 제발. 사람 잘못 아니라고 해도 좋으니까. 시스템이 문제였어요. 때문에 숫자 잘 프로그래밍을 프로그래밍이 잘못했어. 프로그래밍이 프로그래밍이 잘못했으니까. 프로그래밍한테 책임 몰고. 그거. 바꾸면 누구도 안 다치잖아요. 그리고 학생만 좀 생각해 주세요. 애 우리 애도 공부하기. 제발.

☞ 학부모: 심플하게요. 알아서 **방법 찾아오세요.** 알아서 저희 대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회의하세요. 나가서 찾지 마시고 여기서 찾아주세요. 여기서.

☞ 학부모: **재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천여명에게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면.

교육청: 그러면 학부모님들 그 이런 어떠 실까요? 왜냐면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 의회 때문에 좀 참석을 해야 될 상황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걸 제안 드리는 건 뭐냐면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조금 집약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 계시고 또 대표단을 따로 만나 가지고 이렇게 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거를 좀 논의를 하시는 게. 또 어떨 까는 생각이 들어가 사람이 해야 합니까?

☞ 학부모: 무슨 논의를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표가 뭐가 어디 있어요?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여기 있는 거구요.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애는 공부할 수 있게 사람 수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의견을 더 놓고 싶어요? 메일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목소리도 하나고요. 의견도 하나고요. 요구 사항도 하나라고요. 바라는 것도 하나.**

☞ 학부모: **채워주는 거. 인원만.** 시정하셔야 줘. 다른 학교랑 똑같이 채워주세요. 공부할 수 있게.

☞ 학부모: **교육장님이 국장님들하고 이야기하라고 그랬죠.** 머리 떨어지고, 몸 떨어지고. 이제 팔다리하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저는 남아 있는 팔다리하고 얘기할까요? 저기 권한도 없는 광명교육지원청하고 얘기합니까?

☞ 학부모: 지금. 의회 다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들은요. 저희도 생계 다 내려놓고. 자식 다 버리고. 지금 왔는데. 해결 방안도 안 하고. 상황 있다고 나가시면. 저희는 상황 없나요? 다 똑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 ❶ 학부모: 의회에 저희 초대할 수 있어요?
- ❷ 학부모: 특수한 상황이니까. 지금 저희가 기다릴 게요. **특수한 상황이니까. 특수하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 ❸ 학부모: 다녀오세요. 얼른. 괜찮아요. 저희 신경 쓰지 마시고요. 빨리 다녀오세요. 빨리.
- ❹ 학부모: 이날 놓치시면. 또 다른 날 여기 옵니다. 시스템 오류 인정했다고요.
- ❺ 학부모: 프로세스상 숫자 계산 다 맞다라고 하면. 그럼, 무조건 내년에는 40명, 30명이겠네요.
- ❻ 학부모: 안 와요. 그죠? 안 와요. 0명이예요.
- ❼ 학부모: 그거 확실하시죠? 왜? **규정대로 했고. 매뉴얼대로 했고. 수식대로 했고.** 저기요. 사무관님 수식대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수식. 수식. 사람이 건들 수 없는 이미 계산해 되어서 나오는. 수식대로 계산이 돼서 나온 거잖아요. 제가 쉽게 표현했어요. 거기다 이제 프로그래밍까지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다음 거는 무조건 30명이네요. 무조건 해결해. 왜 계십니까? 컴퓨터가. 그렇게 진행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이유가.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잖아. 프로그램한테 다 내던져주세요.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한테. 프로그래밍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광명고등학교에 학생을 채워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지으시고 안을 가지고 오세요. 됐죠. 전제가 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혹시 제가 말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없죠. 없습니다. 대표가 없죠. 다 대표들인데. 어떻게 대표를 한 명만 먹으라고요? 이 의견이 다 같은 거예요. 제가. 제가 아셨죠? 안을 가지고 와주세요. 대화는 그만해요.
- ❽ 학부모: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더 듣는들 뭐가 바뀔니까? 저희가 들어야 이제는 많습니다. 이제는
- ❾ 학부모: 이거를 해결해 주시고. 내년부터 어떻게 바뀔 건지는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런 이야기하시지 말고. 내년 이야기는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신 다음에. 내년에는 이렇게 안 되게 하겠습니까라고. 그 이야기는 맨 나중에 하시라고요. 그걸 맨 앞으로 놓으려고 하지 말고.
- ❿ 학부모: 내년은 없어요. 올해가 없으면.
- ⓫ 학부모: 아니,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또 마찬가지로잖아요. 내년은 없다고요.**
- ⓬ 학부모: 이제 다 들으셨잖아요. 얼른. 얼른 회의하고 오세요. 오늘 가셨다가 회의하시고. 식사도 하고 오세요. 식사도 천천히 하고 오세요. 시스템 문제도 시도하신 다음에. 빨리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 ⓭ 학부모: 저희 아이가 학원 갔다 오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엄마 진성고에 누구누구 자퇴한대. 그게 지금 1명, 2명, 3명이예요. 학원 갔다 오기만 하면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집회간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알고 있고. 지금 안 다닌다는 애들이 전학 가고 자퇴하는 애들이 지금 한두 명씩 더 늘고 있어요. 교복 안 찾아간 애들이 6명이잖아요. 내가 들은 내용만 해도 지금 3명, 4명이예요.
- ⓮ 학부모: 아이들이 불안해 해요, 지금.
- ⓯ 진성고: 국장님 이거는 지금 신입생만의 문제가 아니예요. 1학년 사태가 이렇게 발생하면 누가 가장 힘들어 하나면 제학생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까지 그런 환경이 굉장히 불안한 환경을 지금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2, 3학년 아이들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 ⓰ 학부모: 지금이 남은 인원이 90이 아니라 50이 될 수도 있고요. 40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 ⓱ 학부모: 지금. 그러니까. 빨리 해 주세요. 지금. 내일 다음 주 이렇게 미루실 게 아니예요. 네. 빨리 다녀오세요.
- ⓲ 안성환: 이렇게 진행하시죠. 지금 이분들 나가서 11시 반까지 한 50분 논의를 좀 하고. 우리 학부형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게요. 11시 반에 와서 좀 입장을 좀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렇게 간절한데. 다시 한번 심사 수고해서. 다시 스테이지에 가서 논의를 하시고 안을 갖고 50분 후에. 저도 11시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11시 반에 와서 입장을 좀. 50분 후에.
- ⓳ 학부모: 조금 걸리시면 괜찮아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맹점이 뭐 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알아요.

☉학부모: 다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신다고 하고 안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부모: 저희가 안 가요. 저희가 안 가요.

☉안성환: 아니 저희들이 같이 있으니까요. 배장들이 좀 배석을 할 부분이 있고. 감당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 나누어요.

☉학부모: 생계 다 필요 없어요. 빨리 나가세요. 제발. 진짜 빨리 끝나고 오세요. 나가서 논의를 하고 오세요. 왜. 왜 여기서 눈치를 보고 있어요. 빨리 나가시라고요. 가서 논의를 하시라고요.

☉안성환: 일단 나가세요. 나가서 논의를 하고 오세요. 가서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을 11시 반에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이미 이야기를 교육감과 이야기했기 때문에. 따로 또 거기를 갈 필요가 없어요.